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500만 달러 규모의 졸업 후 자택소유 프로그램 (GRADUATE TO HOMEOWNERSHIP PROGRAM) 개시

최근에 졸업한 사람들을 위해 자택 소유를 권장하고 재능있는 젊은 사람들을 유지하고 유지하며 8곳의 업스테이트 다운타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디자인된 계획

강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지역의 성공적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Finger Lakes Forward)”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시작한 프로그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최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자택소유주가 되는 것을 돕기 위해 새로운 500만 달러 규모의 졸업 후 자택소유 프로그램 (Graduate to Homeownership Program)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Cuomo 지사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에 참여하는 8개 도시에서 시작될 예정인 이 시범 프로그램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추가 수수료가 없는 계약금 지원 대출, 자택 구매자 교육 과정 등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업스테이트 뉴욕 전 지역의 다운타운 지역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시작과 함께 이 지역사회들과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저희는 젊은 졸업생들의 마음을 얻어 저희의 활동을 더욱 진척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능있는 졸업생들을 위해 장벽을 제거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새로운 자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도록 하여 저희는 미래 세대를 위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보다 강하고 더욱 실용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네바의 발표식에 참석했던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점점 더 지역사회의 레스토랑, 쇼핑, 교통 수단, 문화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운타운 지역에서 일하면서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우리의 다운타운을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걸기 좋고 번영하는 지역사회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졸업 후 자택소유 프로그램 (Graduate to Homeownership Program)은 우리의

졸업생들에게 업스테이트 뉴욕 바로 이곳에 살면서 일하고 가정을 만들기에 좋은 장소로 매력이 상승하고 있는 다운타운에 소재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가 만든 이 새로운 졸업 후 자택소유 프로그램 (Graduate to Homeownership Program)은 지난 48 개월 내에 이년제 대학 학위 소지자, 사년제 대학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공인된 대학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자격을 갖춘 생애 최초 자택구매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반드시 다음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지역사회들 중 한 곳의 주택을 구매해야 합니다.

- 웨스턴 뉴욕, 제임스타운 시
- 핑거 레이크스, 제네바 시
- 서던 티어, 엘마이라 시
- 센트럴 뉴욕, 오스위고 시
- 모호크 밸리, 오네온타 시
- 노스 컨트리, 플래츠버그 시
- 주도 지역, 글렌스 폴스 시
- 미드 허드슨, 미들타운 시

RuthAnne Visnauskas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졸업 후 자택소유 프로그램 (Graduate to Homeownership Program)은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업스테이트 뉴욕의 시와 타운들을 소생시키려는 주지사님의 계획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에 졸업한 사람들이 새로운 성장과 비즈니스 기회를 갖추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 자택소유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주택을 구입하여 여기에 머무를 수 있게 하여 우리는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고 미래의 활기차고 번영하는 지역사회들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졸업 후 자택소유 프로그램 (Graduate to Homeownership Program)은 뉴욕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자택을 구입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뉴욕주 주택담보대출청 (State of New York Mortgage Agency, SONYMA)에서 관리합니다. 2011년부터 뉴욕주 주택담보대출청 (SONYMA)은 9,000 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이 자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준 주택담보대출 파이낸싱에 15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졸업 후 자택소유 프로그램 (Graduate to Homeownership Program)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 3,000 달러 이상의 계약금 지원 대출 또는 추가 수수료 없이 자택 구매 가격의 3 퍼센트에 해당하거나 최고 15,000 달러
- 추가적인 보조금 및 자원 이용 가능,
- 자택구매자 온라인 및 캠퍼스 내 상담 및 교육.

뉴욕주 주택담보대출청 (State of New York Mortgage Agency)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대출받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에게 소득 기반 상환의 혜택에 대해 조언하며 정보를 토대로 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택소유 상담 기관, 대학 및 대학교, 주택담보대출 기관 등의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참여 지역 전체의 캠퍼스들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자택구매자들이 지불 연체 또는 지불 불이행 등과 같은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을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패니 메이 전국 주택 설문조사 (Fannie Mae National Housing Survey)에 따르면 25 세에서 34 세 사이의 사람들 중 90 퍼센트가 결국 자택을 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졸업 후 대학 및 대학교 학생들의 71 퍼센트 이상의 대학생들이 그 지역에 남아있는 반면, 많은 업스테이트 지역사회는 졸업할 사람들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업스테이트의 경제 성장과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시장 덕분에 이 지역사회들은 밀레니엄 세대의 자택소유에 이상적입니다.

뉴욕주 상원 주택, 건설, 지역사회 개발위원회 (Senate Housing, Construc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 위원장인 Betty Littl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 거기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유로 자택소유는 그 방정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작년 예산에 포함된 Cuomo 주지사님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 속에서 선정된 수상자들 중 글렌스 폴스 시와 플라츠버그 시를 볼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우리 도시의 경제 성장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우리는 더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우리 다운타운으로 그들의 미래를 보러 올 것을 목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택소유 프로그램은 그들 중의 일부가 이 도시 지역에 뿌리를 내리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것입니다.”

뉴욕주 하원의 주택위원회 (Assembly's Housing Committee) 위원장인 Steven Cymbrowitz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졸업 후 자택소유 프로그램 (Graduate to Homeownership Program)은 우리의 젊은 대학 졸업생들에게 그들이 뿌리를 내리서 활기차고 안정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정 및 교육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회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거둘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우리의 주택 재고를 해결하고 인근 이웃 지역에 대한 장기간의 투자와 약속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커뮤니티 칼리지 (Finger Lakes Community College, FLCC) 학장인 Robert Nye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커뮤니티 칼리지 (FLCC)는 학생들이 지역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을 얻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자택소유 프로그램 (Graduate to Homeownership Program)은 우리 학생들이 거주하며 일하는 지역사회에서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인 훌륭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핑거 레이크스 커뮤니티 칼리지 (FLCC) 동창생들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얼마나 긍정적인지 알게 될 이 프로그램의 개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hawn Blauvelt 케우카 주택 협의체 (Keuka Housing Council) 자택소유 카운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mesmart NY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에 재능있는 대학 졸업생을 유지하고 핑거 레이크스의 심장부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지사님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를 기대합니다.”

John Johnson 테크놀로지 팜 (The Technology Farm)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졸업 후 자택소유 프로그램 (Graduate to Homeownership Program)은 젊은 기업가들을 유치하려는 우리 지역의 활동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며 우리가 핑거 레이크스에서 추구하는 경제 발전과 함께 협력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뉴욕주 주택담보대출청 (SONYMA)의 졸업 후 자택소유 프로그램 (Graduate to Homeownership Program)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sonyma.org 를 방문하시거나 1-800-382-4663 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졸업 후 자택소유 프로그램 (Graduate to Homeownership Program)은 Cuomo 주지사의 기존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 활성화 활동 특히 업스테이트를 보완합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 (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1 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다음 세대의 뉴욕 주민들이 머물러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활기찬 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016 년,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장기 성장과 번영할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10 곳의 지역사회에 1,000 만 달러의 주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